

# KMI 국제물류위클리

www.kmi.re.kr

총괄\_ 이성우 실장, 감수\_ 김형태 감리위원

## 집필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세계 물류동향 중 국제물류투자 협의체 회원사들(2011.01. 현재 122개 업체) 및 국내 물류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신규 해외사업발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들과 국토해양부 관계관 여러분께 매주 수요일 배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글로벌 물류 신규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회원사들은 우리 센터로 연락<sup>1)</sup>을 주시고, 다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우리 센터는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주선 등의 역할을 지원<sup>2)</sup>할 수 있습니다.
4.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 여러분들에게 국내외 국제물류 관련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매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 < 목 차 >

□ ICTSI, 인도 Kattupalli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권 획득-----	2
□ DB Schenker, 금년 중 독일-중국간 철도 사업 개시 예정-----	3
□ APM Terminal 컨소시엄, Peru Callao 북터미널 운영사로 선정-----	4
□ 미국 루이지애나주 신규 곡물수출 터미널 건설-----	5

1) 연락처: 김찬호 책임연구원(02-2105-2908, [chkim@kmi.re.kr](mailto:chkim@kmi.re.kr)), 송주미 연구원(02-2105-2872, [jmsong@kmi.re.kr](mailto:jmsong@kmi.re.kr)), 박철원 연구원(02-2105-2982, [ironwon@kmi.re.kr](mailto:ironwon@kmi.re.kr))

2) 해외투자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위클리 맨 뒷장의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KMI 국제물류위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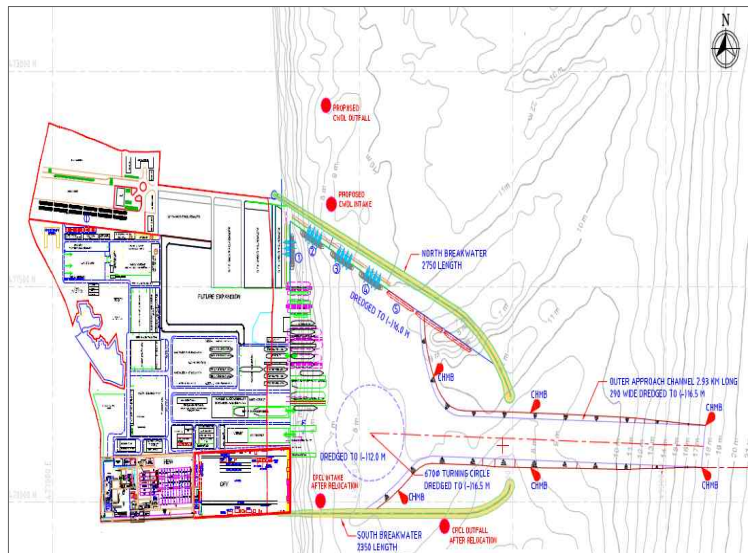
## □ ICTSI, 인도 Kattupalli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권 획득

- 필리핀 기반의 항만운영사인 ICTSI(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 Services, Inc.)가 인도 타밀나두 주(Tamil Nadu)의 Kattupalli Container Terminal(이하 KCT)의 운영권을 취득하였음
  - 인도의 엔지니어링 및 건설기업인 Larsen and Toubro Ltd(이하 L&T)는 Tamil Nadu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이하 TIDCO)와 합작으로 L&T Shipbuilding Limited (LTSB)를 설립하여 Kattupalli 조선소-항만 복합단지 개발(Development of Shipyard cum Port Complex at Kattupalli)을 추진해오고 있음
  - L&T는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를 별도로 선정할 계획이었으며, ICTSI는 자회사인 ICTSI Ltd, ICTS (India) Pte. Ltd.,와 LTSB의 합작을 통해 KCT의 운영권을 획득하였음
- KCT는 현재 공사단계에 있으며 내년도인 2012년 1월 개장 목표임
  - KCT는 첸나이에서 북쪽으로 24km 떨어진 위치에 있으며, 1단계는 선석길이 700m(350m 선석 2개), 터미널 면적 20ha로 연간 처리능력은 120만 TEU임
  - KCT의 2단계가 완공되면 터미널의 연간 처리능력은 180만 TEU가 될 예정임

&lt;인도 내 Kattupalli 위치&gt;



&lt;Kattupalli 조선소-항만 복합단지 마스터 플랜&gt;



자료 : CI online, 2011.4.8. / [www.ictsi.com](http://www.ictsi.com) 보도자료, 2011.4.6.

송주미 책임연구원(☎ 02-2105-2872, [jmsong@kmi.re.kr](mailto:jmsong@kmi.re.kr))

## KMI 국제물류위클리

## □ DB Schenker, 금년 중 독일-중국간 철도 사업 개시 예정

- 독일 철도청의 물류사업 그룹인 DB Logistics사의 자회사인 DB Schenker사는 독일과 중국간 철도 시범운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발표
- 금번에 성공한 시범운행은 독일의 뒤스부르크(Duisburg)와 중국의 충칭간에 이루어졌으며, 운행기간은 16일에 소요
  - 운행구간은 몽고의 남부노선을 이용하여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폴란드 등을 거치는 구간으로 총 운행길이는 10,500km에 이르렀음
  - 금번 시범운행에 앞서 DB Schenker사는 TSR(Trans-Siberian Railway)를 이용하는 북부 몽고노선을 통해 두 지역 간 열차 시범운행을 시행했는데, 이때 운행길이는 12,500km이었음
- 금번 시범운행을 통해 DB Schenker사는 두 지역 간에 발생하는 화물운송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였으며, 금년 중에 두 지역 간 정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을 밝힘
- 한편 DB Schenker사는 지난 2009년부터 독일-중국간 철도운송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같은 해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독일과 중국간 해상 운송비(Frieght Rate)가 이전에 비해 50% 수준으로 인하되었기 때문임
- 금년 내에 DB Schenker사가 독일-중국간 철도운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수립한 이유는 2011년 들어 해상 운송비가 2008년도 수준을 회복하여 독일-중국간 철도운송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증가하였다는 판단에 기인함
  - 러시아의 시베리안횡단운송위원회(Coordinating Council of Transiberian Transportation)에 따르면 2010년 러시아-중국-유럽간 운송된 컨테이너 5,726박스로 2009년 대비 125% 증가

자료 : Ci-Online, 2011. 4.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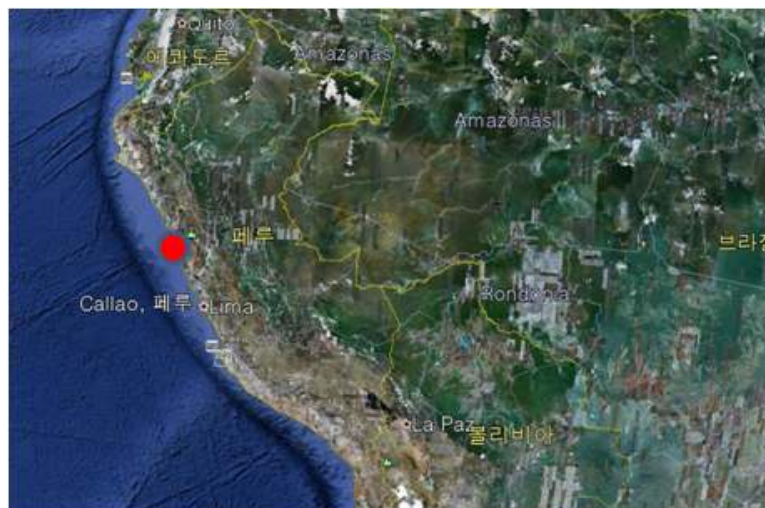
김찬호 책임연구원(☎ 02-2105-2908, [chkim@kmi.re.kr](mailto:chkim@kmi.re.kr))

## KMI 국제물류위클리

## □ APM Terminal 컨소시엄, Peru Callao 북터미널 운영사로 선정

- APM Terminal 컨소시엄은 홍콩의 허치슨항만 지주(HPH)사를 물리치고 페루 카야오 북부두터미널(TMN) 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양허를 확보
    - APM 터미널 컨소시엄의 참여기업은 APM Terminal, Callao port holdings, 페루 central port 3개 기업이며, 금번 양허권획득으로 APM 컨소시엄은 TMN의 30년 운영권을 확보(4월1일 페루투자청 발표)
  - 한편 APM 터미널사는 TMN의 현대화 사업에 총 749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터미널 현대화 및 다목적항 목적에 맞게 시설 현대화를 추진 할 예정
    - 공사후 TMN은 연간 컨테이너 290만TEU와 비컨테이너화물(일반화물, Ro-Ro 화물, 벌크화물, 크루즈선박) 990만톤을 처리 가능하게 됨
- \* 2010년 카야오항은 전년대비 28%가 증가하여 130만TEU를 처리했으며 2015년까지 연평균 10%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 아시아/남미간(특히 중국과의 광물) 무역의 주요 항만으로 부각되고 있음
- \* APM Terminal사는 현재 남미에서 브라질 Itajai, Pecem, Santos항 건설지분 50%,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는 31개국 50개 터미널을 운영하여 세계 2위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임

&lt;페루 카야오 항 위치&gt;



자료: APM terminals / [www.apn.gob.pe](http://www.apn.gob.pe) (페루 항만청) / [www.cargosystems.net](http://www.cargosystems.net) 2011.4.7

박철원 연구원(☎ 02-2105-2982, [ironwon@kmi.re.kr](mailto:ironwon@kmi.re.kr))





## □ 미국 루이지애나주 신규 곡물수출 터미널 건설

o IFG(Interface Financial Group) Holding는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5,920만 달러를 투자 곡물 수출터미널을 건설하기로 함

- 본 프로젝트는 2008년 5월 공표된 것으로 Lake charles 항만당국과 IFG 항만지주사 간의 합의한바 있음
- 신규 터미널에는 곡물창고 및 엘리베이터 시설을 갖춰 시간당 2천톤을 처리할 예정이며 취급곡물은 주로 밀, 쌀, 옥수수 등 임
- Lake Charles항만은 1,010만 달러를 투자하여 순환트랙을 설치할 예정이며 철로와의 연결부분을 향상시키고 Union Pacific(UP)는 철로 인프라 개선에 6백만불을 투자하여 공사를 지원하기로 함

\* Lake Charles Harbor and Terminal은 미국의 11번째로 큰 항만지역이며 루이지애나주 남서쪽 Calcasieu ship Chnnel에 위치 함

\* IFG는 뉴욕에 본사를 둔 글로벌투자기업으로 농업과 관련된 인프라사업 개발에 주로 투자하고 있음

계열사인 Grain Bulk Handler사는 아프리카에서 155,000 톤을 초과하는 창고시설과 함께 대규모 곡물수입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음

<Lake Charles항 위치>



<Lake Charles harbor and terminal>



자료: Lake Charles harbor and terminal district / www.ci-online.co.uk 2011.4.7

박철원 연구원(☎ 02-2105-2982, [ironwon@kmi.re.kr](mailto:ironwon@kmi.re.kr))

## KMI 국제물류위클리

##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비용 지불),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